

신현목(소프트웨어 개발자) 1차 구술

1. 구술자: 신현목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3월 27일
5. 구술장소: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대회의실
6. 구술분량: 05분 57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홈페이지 노하우(knowhow)와 ‘바보 노무현’

구술자 : 노 대통령께서 원하시던 건 사람과 사람과의 릴레이션(relation), 어떻게든.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노하우’ 홈페이지 만들 때에 그 로그인(login) 기능을 없앴어요.¹⁾ 없애자는, 기능을. (그 말을) 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쓴 소리나 나쁜 소리도 올라와야한다.’ 아, 굉장히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셨죠. 왜냐하면 그때 악플도 많았거든요. 아마 정치인 사이트(site) 중에 로그인 기능을 뺀 분은 지금도 유일무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사실 되게 힘들죠, 관리하려면. (근데) 그러셨어요.

면담자 : 예, 그때 선생님도 처음부터 찬성을 하셨나요?

구술자 : 아니요, 반대했죠. 그러니까 악플도 많이 올라오고 관리가 안 된다. 그것도 졌죠. 그래서 로그인 기능 뺐어요. 주변에서 다 말렸죠. 왜냐하면 이상한 놈 들어올 거고 또 뭐 어떤, 저쪽에서도 공격을 할 거고. 왜냐하면 더군다나 선거철이었잖아요.²⁾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오는데. 근데 (악플이) 달리긴 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게 많아가지고 묻혀버렸죠. 아, (노 대통령) 생각이 맞구나. 로그인 기능 뺀 정치인 사이트는 최초였을 거예요. 그때도 다 말렸어요. 있어야 된다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두 가지였어요. 아니, 나란 사람한테 대화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무슨 로그인이 필요하냐고. 국민인데 필요 없다고, 그런 기능 빼버리라고. 그러니까 기능상으로도 빼버리라고 했고 요즘 유저 익스페리언스(user experience)³⁾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입력하면 귀찮잖아요. 그것

1) 구술자의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과정은 1996년 작업해 1997년 초에 선보인 ‘뉴리더’에서 ‘우리들98’, ‘노하우 2000’으로 이어졌다.

2) 다시 부산에서 출마한 2000년 16대 총선 상황을 말함.

3) ‘User eXperience’ 약자로는 UX로 표기. 우리말로는 ‘사용자 경험’으로 번역. 즉 사용자가 제품과 서비스, 그

도 빼라고 하셨고, 그런 것도 필요 없다 하셨어요.

면담자 : 그 ‘노하우’ 라는 이름은 어떻게

구술자 : 아, 예. 원래는 그 ‘뉴리더’ 하고 ‘노하우’ 가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게 아마 부산에 내려가시기 전에, 종로 보궐선거 끝나신 직후에 그때 아마 종로 그 맥 근처에 거기 또 횃집이었는데, 횃집에서 ‘노하우’ 얘기를 처음 했던 기억이나요. 그러니까 지식을 공유하자. 그러니까 노하우(knowhow), 그런 측면이 강했어요. 원하던 소프트웨어가. 하시던 일, 아니면 하고 계시던 일, 모으셨던 자료들, 이런 것들에 릴레이션이라든지 전문적으로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같이 쓸 수 있고. 나만 쓰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들’ 이란 단어 쓰셨거든요. 우리들이 공유해서 쓰고 만들고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을 넣는 공간으로 어떨겠느냐, 라고 하면서 노하우 얘기가 그때 처음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빨리 도메인 따야겠다고. 노하우 너무 그 좀 알려진 거 아니겠냐, 막 찾아봤더니 다행히 없어서 그때 도메인을 딴 기억이 나요. 그때 생각보다 도메인들이 좀 적을 때였거든요.

처음부터 원하시던 건 그거였어요. 네트워크(network) 상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논하고 싶으셔서 아마 지금 살아계셨으면은 트위터에서 제일 인기인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로. 아마 그 쓴 소리 엄청 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런 걸 원하셨는데. 사실 ‘노하우’ 컨셉도 보면은 오히려 저희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많이 포장한 거였는데 사실 노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냥 소통이었어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했지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자료 올려놓는 것보다는 대화를 더 하고 싶어 하셨어요. 언제나, 살아있는. 가장 그때 확 그 생각이 버전 업(version up) 되셨던 게 부산선거 떨어지고 올라오셔서 나를 절망하실 때. 아마 그 직후일 거예요. 뭐 ‘노하우’ 가 난리가 났죠. ‘바보 노무현’ 소리 나오고.

지금도 기억하는데 인터뷰하시고 그러면서 ‘아,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내가 내려가서 한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다 말렸어요. 그거 내려가시면 떨어지는 게 당연하신데 부산에 내려가셔서, 그거는 정말 미친 짓이다. 이건 바보짓입니다, 라고 해서 다 말렸어요. 딱 한 분, 저 분만 내려가셨어요. 나 그래도 갈 거라고. 근

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전체적인 느낌이나 경험을 말한다. 디지털타임즈, 2011.8.11 참고

데 내려가셔서 정말 바보짓을 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노하우’에 쪽 댓글 달리고 서버(server)가 계속 죽어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들어 왔으면. 그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뉴리더’의 컨셉이나 ‘우리들’의 컨셉은 그냥 자료공유나 모아 놓은 것을 사람사이에 이것도 그냥 명부 연결하고 자료 공유하고 정도였었는데 이걸 소통하는 컨셉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갔죠. 초기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팬 사이트(fan site)도 같이 있었어요. 게시판 하나 따로 만들어졌다가 이것 때문에 죽어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나가고. 그 때가 고 시기였었어요. 아마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바보짓을 이해해주는구나’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얼굴 표정이 막 그냥 생기가 도신다고 하죠? 사실 그때가 정말 바보 노무현이 되셨을 때죠, 정말로.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그때 노 대통령께서 다시 정치하는 힘은 ‘노하우’에서 얻으셨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보 노무현’이라는 수많은 글들을 보고 기운을 내셨던 기억이 나요. 그 홈페이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 계속 죽어나갔거든요? (노 대통령) 전화가 오셔 가지구 자꾸 죽는다고.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이거 감당이 안 된다고. 자그마한 피씨(PC) 서버론 안 된다고. 저희 오히려 회사 네트워크가 죽어버린다고, 이것 때문에. 그 두구두구(두고두고) 이제 주변사람들한테 자랑해요. ‘노하우’도메인도 따드렸고, 초기 디자인도 해드렸고 그리고 그때 그 소프트웨어도 제가 직접 개발했었거든요, 초기버전은. 뿌듯하죠.

■ 구술자 주요이력

1972. 인천 출생

1990년대 이래 온라인게임 개발, 제약·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정보시스템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해 옴.

1996년 하반기 ‘뉴리더’의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일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래 ‘우리들’ 소프트웨어 개발과 ‘노하우2000’ 초기 버전을 만드

는 일에 참여했다. 1997년 3월 16일 결혼식에 노 대통령이 주례를 서기도 했다.
그 같은 인연이 2010년 5월 주간지 ‘한겨레21’ 811호에 소개된 바 있다.